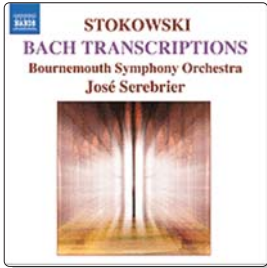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57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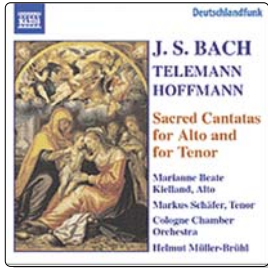


바흐/헨델/파셀: 스토코프스키 편곡 작품집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Jose Serebrier, cond.

바로크 시대의 인기곡들이 위대한 지휘자 스토코프스키의 색채적인 관현악기법을 통해 한층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G선상의 아리아, 양들은 편히 풀을 뜯고, 파사칼리아와 푸가, 메시아 중의 전일교향곡, 디도와 아에나아스 중 디도의 탄식 등등 수록.

8.557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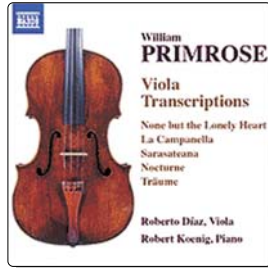


바흐/호프만/텔레만: 알토와 테너를 위한 칸타타

Marianne Beate Kielland, ms
Markus Schafer, te
Cologne Bach Choir
Cologne Chamber Orchestra
Helmut Müller-Bruhl, cond.

BWV35의 신포니아는 하프시코드 협주곡 BWV1059에 전용되었던 작품이며, 함께 수록된 호프만과 텔레만의 작품들은 각각 과거 바흐 칸타타 BWV189와 160으로 잘못 알려졌던 작품들이다.

8.557391



프림로즈 : 비올라 편곡 소품집

Roberto Diaz, viola
Robert Koenig, piano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비올리스트 일리엄 프림로즈가 자신의 악기 비올라를 위해 편곡했던 고급의 유명 선율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보로딘의 녹턴,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빌라로보스의 바키아나스 브라질리아스, 차이코프스키의 다만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 등등

8.557556



비발디: 바순 협주곡 3집 RV 495, 474, 483, 502, 472, 500

Tamas Benkocs, bassoon
Nicolaus Esterhazy Sinfonia
Bela Drahos, cond.

다양한 악기들을 위해 500편 이상의 협주곡을 남겼던 비발디. 저음역을 보조하는 악기였던 바순 역시 그의 손길을 거쳐서 화려한 독주악기로 거듭났다. 현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수석을 맡고 있는 타마스 벤코츠의 눈부신 기교가 비발디의 쾌활한 악상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8.557890



그리그: 현을 위한 작품들 (오베르투르, 조곡, 서정 모음곡 외)

Oslo Camerata
Stephan Barratt-Due,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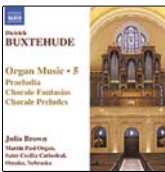
8.555311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5권

Delitiae Musicae
Marco Longhini,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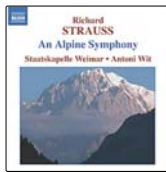
8.557555



부스테헤데: 오르간 작품집 vol.5

Julia Brown, organ

8.557811



R. 슈트라우스: 현악 교향곡

Weimar Staatskapelle
Antoni Wit,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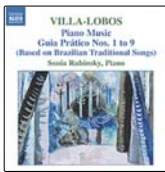
8.557777



아일랜드: 현악사중주 1, 2번, 홀리 베이

Maggini Quartet

8.570008



빌라로보스: 피아노음악 Vol.5 (Guita Pratico)

Sonia Rubinsky, piano

8.557632



구리다: 엘 카제리노

Ana Rodrigo, sop
Emilio Sanchez, te
Vicente Sardinero, bar
Bilbao Symphony Orchestra
Juan Jose Mena, cond.

8.555016



아일랜드: 랩소디

Richard Hayman
Orchestra
Richard Hayman, cond.

8.557665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vol.6 (K360, 402, 403, 570)

Benjamin Loeb, piano
Takako Nishizaki, violin

8.557752



영국 현악 소품집 vol. 5

Royal Ballet Sinfonia
Gavin Sutherland, cond.

8.557738



헨제: 바이올린협주곡 1, 3번, 5개의 밤 소품

Peter Skaerved, vn
Saarbrücken Radio
Symphony Orchestra
Christopher Lyndon-Gee

8.557635-36



로베: 수난 오라토리오 (2CD)

Heures Romantiques
Ensemble
Udo Reinemann, cond.

8.660205-06



마이어베어: 세미라미데 (2CD)

Württemberg
Philharmonic Orchestra
Richard Bonyng,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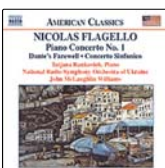
8.556833



Cinema Classics 2006

브로크백 마운틴
찰리와 초콜릿공장,
오만과 편견, 킹덤 오브 헤븐,
월리스와 그로밋 외

8.556236



플라젤로: 피아노협주곡 1번, 단테의 이별, 몬테르토 신포니코

Daniel F. Lussier, piano

8.556436



데이비슨: 천사의 노래, 주 앞에서 다투어 춤추네, 바로크모음곡

Czech Philh
Vaclav Talich, cond.

8.111045



드보르작: 교향곡 7, 8번 (1935, 1938년 녹음)

Czech Philh
Vaclav Talich, cond.

8.111004



로테 레만: 리트 레코딩 2집 (1937-40)

Heures Romantiques
Ensemble
Udo Reinemann, cond.



World Music Hot Issue

뉴에이지의 여신 자넷 알렉산더

Artist of the Month

유 콜 잇 러브의 가수 카롤리네 크뤼거

Cover Story

완벽한 테크닉의 화신 야사 하이페츠

완벽한 테크닉의 화신

야샤 하이페츠(Jascha Heifetz)

1901년 러시아령 리투아니아 빌나에서 출생한 야샤 하이페츠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신동 바이올리니스트로 경력을 시작했다. 3세 때부터 아버지한테 바이올린을 배운 그는 5세에 빌나에서 데뷔 연주를 했는데, 이 즈음 그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벽하게 소화할 정도였다. 여덟 살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해, 처음에는 날보디안에게 배웠고, 나중에는 저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출신의 선생인 레오폴트 아우어의 제자로 공부했다. 19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첫 공개 연주회를 개최해 성공했고, 이듬해엔 독일 베를린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갔다. 이때 유명한 지휘자 아르투르 니키슈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때 그는 아직 학생 신분이었다.

1917년 하이페츠는 조국의 러시아 혁명을 피해 시베리아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이때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16세에 하이페츠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미국 데뷔연주회를 개최하게 된다. 1925년에 마침내 미국 시민권을 얻고, 1934년에는 더 화려해진 명성을 안고 조국 러시아를 찾아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그 후 하이페츠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은 물론, 중동이나 동양권의 몇몇 나라에도 두루 다니며 30년 이상 연주활동을 했다. 1971년경 독주자로서의 활동은 접었고, 1974년 이후에는 실내악 활동에 주력했다. 피아티고르스키, 에마누엘 포이어만과의 많은 실내악 활동

은 특히 유명하다. 하이페츠는 윌리엄 월턴,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코른골트 등 당대 유명 작곡가들의 시선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영국 작곡가 윌리엄 월턴이 그를 위한 협주곡을 써서 1939년에 초연하게 했던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이페츠는 바흐와 비발디의 작품 그리고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폴랑크의 작품까지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하는 등 총 200여 편의 편곡물을 남긴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약 10년간 캘리포니아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로스앤젤레스와 오랜 인연을 맺었던 하이페츠. 그는 결국 1987년 12월 10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바로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이페츠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완벽한 기교의 화신'이다. 기교가 연습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손가락 기술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의 기교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길러졌다기보다는 타고난 것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수준의 '독특한 완벽함'은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1917년 카네기 홀 데뷔 무대에 하이페츠가 섰을 때, 그의 출현이 경이로운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당시 하이페츠의 실력을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공연이 있고 몇 주가 지난 후에 이뤄진 녹음들이 우리와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연주가 그렇지만, 특히 고난도의 기교를 요하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바치니의 작품 '요정의 춤'을 연주하는 하이페츠의



바이올린은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조차도 혀를 내두르게 만든 것이다. 바치니의 작품은 오늘날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는 레퍼토리로 즐겨 선택한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곡을 쾌속의 경이로운 테크닉으로 그렇게도 완벽하고 의연하게 연주해낸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이페츠는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든 싸구려

연습용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든 거의 똑같은 소리를 냈다고 한다. '명필이 붓 가리는 가'라는 말이 있지만, 하이페츠에게는, 천부적인, 혹은 이미 체화된 솜씨가 소리 내는 도구의 조건을 압도했던 것이다. 흔히 하이페츠의 연주가 차갑다고 하지만 모차르트의 협주곡 등 그의 파스하다 못해 뜨거운 연주도 너무 많다.

낙소스에서 내놓은 하이페츠의 주옥 같은 명반들



Naxos 8.110990

베토벤 / 브람스 /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



Naxos 8.110936

베토벤 /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Naxos 8.110940

브람스 / 글라주노프 :
바이올린 협주곡



Naxos 8.110939

엘가 / 월턴 :
바이올린 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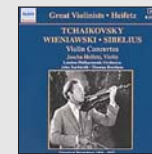
Naxos 8.120664

거쉬인 :
거쉬인과 친구들



Naxos 8.110219-20(2CDs)

거쉬인 :
포기와 베스(오리지널 캐스트 레코딩)



Naxos 8.110938

차이코프스키 / 비에니아프스키 /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Naxos 8.107001(7CDs)

하이페츠 메모리얼 에디션
1901~2001



Naxos 8.110941

모차르트 /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Naxos 8.110942

프로코피예프 / 그루엔버그 :
바이올린 협주곡



Naxos 8.110943

비외탕 :
바이올린 협주곡 4번 & 5번



Naxos 8.110980-81(2CDs)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들

뉴 에이지의 여신

자넷 알렉산더(Jeanette Alexander)

한 폭의 수채화, 한 편의 서정시 같은 음악들

자넷 알렉산더.

데이비드 렌즈(David Lanz),

마이클 호페(Michael Hoppe) 등

뉴 에이지의 거장들이 아낌없는 찬사를 표했던

뉴 에이지 여류 아티스트다.

일찍이 데이비드 렌즈는 “자넷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의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작곡법과 유려한 멜로디는 여러분을 매혹시킬 것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도 그녀의 열렬한 팬임을 공표했다. 렌즈는 또 그녀의 새 음반을 받아듣고는 “완벽한 분위기의 로맨스”라며 “브라보!”를 연신 외쳐대기도 했다.

마이클 호페도 그녀의 팬임을 자처한 사람이다. 아울로스 음반사에 자넷의 음악을 직접 추천하고 본 음반의 제작을 권고했던 사람이 바로 호페였으니 여기에 그의 어떤 다른 찬사를 더 가져와야 할까! 물론 그녀의 음반을 엄청나게 사줬던 미국의 수많은 뉴 에이지 애호가들은 “음반을 사자마자 3시간 동안 꿈쩍하지 않고 들어야 했으며” “내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갔다”는 찬탄을 쏟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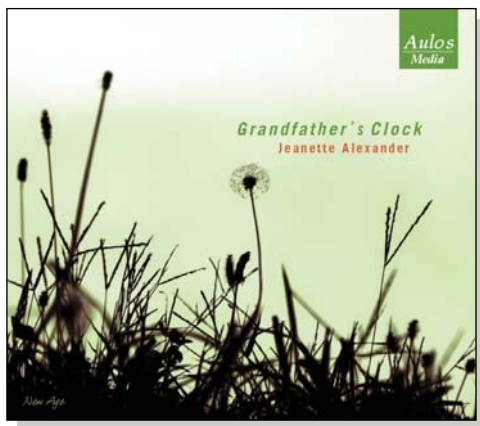
그러면 왜 우리 시대 최고의 뉴 에이지 거장들이 그녀의 음악에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했을까? 그녀의 음반에는 무엇이 있기에, 무슨 매력이 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가? 자넷 알렉산더의 음악은 우선 한 폭의 수채화다.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금세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 드넓은 바다, 혹은 저 멀리 아득한 석양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어느 화창한 아름다운 날, 발길에 나뭇잎이 스치는 숲속을 거닐고 있는 느낌으로 썼다는 ‘햇빛

산책(Walk in the Sun)’, 그리고 석양에 반짝이는 수평선을 연상시키는 아련한 오보에 선율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함께 느끼는 것(Common Ground)’ 같은 곡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후자는 특히 포스코 CF, 즉 포항제철 이미지 광고에도 사용되어 국내 애호가들에게도 폭발적인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따라서 그녀의 이름을 몰라도 잔잔한 피아노와 기타 선율 위에서 오보에의 노래가 아련하게 울리던 이 음악에는 익숙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 타고 나가기(Setting Sail)’란 곡은 또 어떤가! 해변에 온 느낌을 그대로 들려주는 도입부의 갈매기 울음소리,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해가는 정경을 그린 갖가지 낭만적인 소리의 편린들은 우리의 귀속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조립된다. 또, 자넷의 음악은 한 편의 서정시다. 그녀의 음악은 파스한 정감으로 가득 차 있고, 극적인 효과보다는 잔잔한 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앞에서 수채화의 예로 든 곡들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가슴이 따스해진 경험들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곡처럼 들리는 ‘그대 때문이에요(Because of you)’, 한갓 실루엣 같은 덧없는 인생이지만 ‘와서 충분히 즐기고 떠나노라’고 보람찬 이별을 하는 듯한 ‘태양은 지는데(Sun Down)’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가슴이 훈훈한 열기로 충만하게 된다. 이 음반의 별미로 즐길 수 있는 미국 노래 ‘할아버지 시계’의 편곡물도 그 깊이를 짚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다. 자넷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을 순간이 많다.

항상 그렇지만 표현능력에서 언어는 음악보다 열등하다. 백 마디 말보다는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그녀의 음악과 함께 낭만의 여행을 당장 떠나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펴



AMC2-069

고 하늘 높이 날다보면 보일 것이다. 여러분이 안착할 커다란 감동의 땅이. 이하는 해설이다. 자넷이 각곡에 대해 자신의 해설을 직접 남겼는데, 90% 이상 자넷의 글을 참조해 필자가 재구성했다. 그녀의 로맨티시즘, 음악이나 글이나 똑 같다.

~ 타이틀곡 소개 ~

*Grandfather's Clock _ 할아버지 시계

이 음반에서는 키보드로 연주되고 있지만, 원곡은 1876년에 헨리 클레이 워크(Henry Clay Work)가 작곡한 옛날 미국노래다. 가사를 쓴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때부터 한번도 멈추지 않고 똑딱 똑딱 돌아가던 시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멈춰버렸다는 내용. 시간 알려주는 기계를 소재로 인생의 덧없음을 야릇한 슬픔으로 노래한 곡이다.

“크고 오래된 할아버지 시계, 100년이나 가고 있던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 아침에 사은 시깁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죠,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똑딱똑딱하더니, 할아버지와 함께 똑딱똑딱하더니, 지금은 움직이지 않죠. 무슨 일이든 알고 있는 옛날 시계, 할아버지 시계. 예쁜 신부가 들어오던 그 날도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었죠,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두 알고 있는 시계죠. 지금은 움직이지 않죠. 한밤중에 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시계에서. 이별할 시간이 온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하늘나라로 가신 할아버지, 시계하고도 이별하셨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그 시계. 100년간이나 쉬지 않고 가더니, 할아버지와 함께 똑딱똑딱 가더니,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Walk in the Sun _ 햇빛 산책

이 노래를 연주할 때면 나는 어느 화창한 아름다운 날, 발길에 나뭇잎이 스치는 숲속을 거닐고 있는 느낌이 든다. “햇빛 산책”은 1월 겨울 아침 내 친구 스코트가 기타 연주를 해주는 가운데 작곡했다. 그가 연주하는 기타 음악은 내 귀를 사로잡았고, 곧 나는 피아노에 앉아 그의 기타 선율 위에 멜로디를 써넣었다. 이렇게 둘이 만든 음악이다.

햇빛이 아름다운 날이었는데 우리는 이 곡을 쓴 후 햇빛 산책을 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껏 가슴 부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즐겨보라! 스코트는 밴쿠버 아일랜드, B.C.에 살고 있다. 영감을 얻기 위해 그는 종종 햇빛 산책을 나가, 태양이 저 물길로 넘어가는 것을 본다. 그의 전자메일은 LiquidBricks@hotmail.com이다.

*Common Ground _ 함께 느끼는 것

이 곡의 연주를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오카리나와 오보에를 연주하는 낸시 림블, 기타를 연주하는 에릭 텅스테드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 요약한다면, 글썄, 사랑 받는 일, 환영 받는 일, 그리고 그럴 필요 있다면, 용서 받는 일 정도가 아닐까? 내가 작곡한 많은 음악들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 일부를 소개한다.

먼 곳을 바라보면

그대가 찾는 것에 기쁨이 있으리니

사랑스런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라

그대 뒤에 남겨진 것들을

여행을 하게 되면

저 활짝 열린 하늘과 땅을 보라

가다가 발견한 것들에 감사하라

용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이리라

글 / 자넷 알렉산더, 글 · 번역 / 이성일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Grieg
Holberg Suite
Melodies for String Orchestra
Oslo Camerata • Stephan Barratt-D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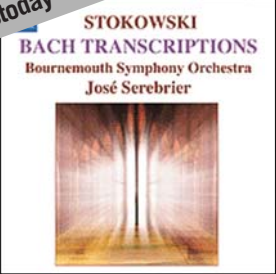
그리그: 현을 위한 작품들 (홀베르크 조곡, 서정 모음곡 외)

Oslo Camerata / Stephan Barratt-Due, conductor

북구의 쇼팽으로 알려졌던 피아노의 대가 그리그. 또한 그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로 가득한 관현악 소품들 역시 다수 작곡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인 홀베르크 모음곡을 비롯하여, 노르웨이의 향토색이 가득한 두 개의 노르웨이 춤곡, 피아노곡 서정 모음곡 중 '요람에서'의 관현악 편곡, 두 개의 슬픈 선율들, 페르귄트 중 '오제의 죽음' 등을 이 나라 토박이들의 단아한 연주로 감상한다.

Naxos 8.557890

Classicstoday 10/10



STOKOWSKI
BACH TRANSCRIPTIONS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José Serebrier

바흐/헨델/퍼셀: 스토코프스키 편곡作品集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 Jose Serebrier, conductor

바로크 시대의 인기곡들이 위대한 지휘자 스토코프스키의 색채적인 관현악 기법을 통해 한층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미 스토코프스키가 편곡한 전람회의 그림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호세 세레브리에르가 다시금 지휘봉을 잡았다. G선상의 아리아, 양들은 편히 풀을 뜯고, 파사칼리아와 푸가, 메시아 중의 전원교향곡,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 디도의 탄식 등등 수록.

Naxos 8.557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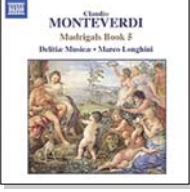
DOWLAND
Fancies, Dreams and Spirits
Late Music • 1
Nigel North, Lute

다울랜드: 류트 작품집 1 (판타지 1-6번 외)

Nigel North, lute

윌리엄 셰스피어와 동시대 인물인 다울랜드는 당시 열병처럼 번졌던 멜랑콜리를 온 몸으로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류트송들과 류트를 위한 독주곡들에서는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다는 그의 과도한 감수성을 아련히 느끼게 된다. 영국을 대표하는 류트 연주자이자 앤드류 팬츠와 더불어 로마네스카의 멤버로 활약했던 나이젤 노스의 낙소스 데뷔 음반.

Naxos 8.557586



Monteverdi
Madrigals Book 5
Delitiae Musicae • Marco Longhini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5권

Delitiae Musicae / Marco Longhini, conductor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5권은 1605년에 출판되었다. 이 작품집에서부터 이전의 5성부를 위한 전통적인 폴리포니 스타일의 마드리갈들이 기악반주가 추가된 마드리갈 콘체르타토라는 보다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불행한 연인들의 드라마틱한 연애담을 담은 텍스트들에 걸맞은 표정 풍부한 음악들을 남성들만의 중후한 앙상블로 담았다.

Naxos 8.555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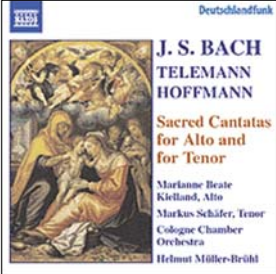
Buxtehude
Organ Music • 5
Praeludia
Chorale Fantasias
Chorale Preludes
Julia Brown
Marble Park Organ,
Gala Centre Cathedral,
Oxford, Oxfordshire

복스테후데: 오르간 작품집 vol.5

Julia Brown, organ

북독일의 휘백을 근거지로 활약했던 복스테후데는 남독일의 파헬렐과 더불어 바로크 시대의 독일 오르간음악을 대표하던 양대기둥이었다. 특히 그가 청년 바흐에 끼친 음악적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번 5집에는 루터리안 코랄을 비롯하여 토카타, 전주곡, 칸초네타 등등 당대의 대표적인 오르간 장르들을 골고루 간추렸다.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마틴 파시가 제작한 네브레스카 성 체칠리아 성당의 오르간.

Naxos 8.557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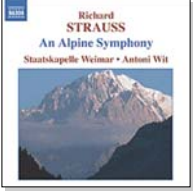
J. S. BACH
TELEMANN
HOFFMANN
Sacred Cantatas
for Alto and
for Tenor
Marianne Beate
Kielland, Alto
Markus Schäfer, Tenor
Cologne Chamber
Orchestra
Helmut Müller-Bruhl

바흐/호프만/텔레만: 알토와 테너를 위한 칸타타

Marianne Beate Kielland, ms / Markus Schäfer, te /
Cologne Bach Choir / Cologne Chamber Orchestra /
Helmut Müller-Bruhl, cond

필러 브뤼의 두번째 바흐 교회 칸타타 음반. 알토를 위한 칸타타 BWV35의 실포니아는 하프시코드 협주곡 BWV1059에 전용되었던 작품이며, 독일의 신에 테터 마르쿠스 샤퍼의 활약이 돋보이는 칸타타 BWV55 역시 값지다. 함께 수록된 호프만과 텔레만의 작품들은 각각 과거 바흐 칸타타 BWV189와 160으로 잘못 알려졌던 작품들이다.

Naxos 8.557615



Richard
STRAUSS
An Alpine Symphony
Staatskapelle Weimar • Antoni Wit

R.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Weimar Staatskapelle / Antoni Wit, conductor

알프스의 장엄한 장관, 청년시절 등산의 추억, 자연을 통한 해방을 추구했던 니체의 사상들을 대편성의 관현악로 극적으로 표현했던 R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관현악걸작인 알프스 교향곡, 낙소스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인 안토니 비트가 한때 작곡가 자신이 지휘하기도 했던 독일의 유서깊은 오케스트라인 슈타츠카펠레 바이마르를 지휘하였다.

Naxos 8.557811



John
IRELAND
String Quartets
The Holy Boy
Maggini Quartet

아일랜드: 현악사중주 1, 2번, 홀리 보이

Maggini Quartet

“영국 근대 작곡가 존 아일랜드는 자국의 자연풍경이나 문학작품들을 통해 받았던 창조적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해왔던 인물이다. 작곡가로 명성을 높이면서 학창시절의 습작들 대부분을 파기하였으나, 다행히도 베토벤의 후기작이나 브람스의 색채가 짙게 풍기는 그의 초기 현악사중주들은 화를 면했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홀리 보이’가 함께 수록되었다. 그라모폰 상에 빛나는 낙소스 실내악의 간판스타 마기니 사중주단의 연주.

Naxos 8.557777



VILLA-LOBOS
Piano Music
Guia Prático Nos. 1 to 9
(Based on Brazilian Traditional Songs)
Sonia Rubinsky, Piano

빌라로보스: 피아노음악 Vol.5 (Guia Prático)

Sonia Rubinsky, piano

아르헨티나의 히나스테라, 멕시코의 차베스와 함께 20세기 라틴 클래식 대표하는 인물인 브라질 작곡가 빌라로보스.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소니아 루빈스키가 진행 중인 작곡가의 피아노 전집의 5번째 음반. 본 음반에는 브라질 민요에 기초하여 작곡가가 교육적인 용도로 완성했던 다양한 편성을 위한 일종의 연습곡 모음집인 ‘Guia Prático’에서 피아노 솔로를 위한 작품 48곡을 담았다.

Naxos 8.570008



Naxos 8.557632

구리다: 엘 카제리오

Ana Rodrigo, sop / Emilio Sanchez, te / Vincente Sardinero, bar / Bilbao Symphony Orchestra / Juan Jose Mena, cond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 작곡가인 헤수스 구리다. 3막의 사르수엘라(스페인 고유의 오페라 장르) '엘 카제리오'는 작곡가의 대표적인 무대음악으로 꼽히는 작품. 이 지역의 민속춤과 이국적인 리듬과 선율이 매혹적이다. 바스크 토박이들의 연주와 노래가 작품의 독특한 색채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Naxos 8.555016

아일랜드 랩소디

Richard Hayman Orchestra / Richard Hayman, conductor

아일랜드의 민요들은 우리 정서와도 잘 어울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 나라 민요들의 친숙한 선율에 기초한 대중적인 성향의 관현악 소품들을 담았다. 여름의 마지막 장미를 비롯한 이 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들을 르로이 앤더슨이 갈무리한 아일랜드 모음곡, 허버트의 아일랜드 랩소디, 리처드 헤이만의 편곡한 싱얼롱 메들리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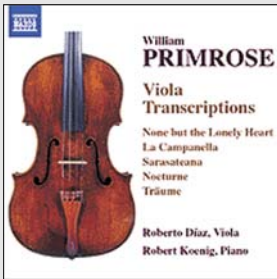


Naxos 8.557665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vol.6 (K360, 402, 403, 570)

Benjamin Loeb, piano / Takako Nishizaki, violin

낙소스의 안주인 타카코 니시자키가 진행 중인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시리즈의 여섯 번째 음반. 모차르트의 마지막 빈 시절의 작품들인 K402와 K403는 작곡가의 사후 슈타들러의 손으로 완성된 작품들. 신원미상의 인물에 의해 바이올린 소나타 형태로 편곡된 피아노소나타 K570, 프랑스 노래에 의한 여섯 변주곡도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7391

프림로즈 : 비올라 편곡 소품집

Roberto Diaz, viola / Robert Koenig, piano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비올리스트 윌리엄 프림로즈가 자신의 악기 비올라를 위해 편곡했던 고금의 유명 선율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주자이자 현재 커티스음악원장으로 재직 중인 로베르토 디아즈가 프림로즈가 사용했던 아마티로 연주하였다. 보로딘의 녹턴,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빌라로보스의 바키아나스 브라질리아스, 차이코프스키의 다만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 등등



Naxos 8.557752

영국 현악 소품집 vol. 5

Royal Ballet Sinfonia / Gavin Sutherland, conductor

다섯 번째 선보이는 영국 현악 소품집. 이번 음반에는 연극, 영화, 방송, 교육 등에서 활약했던 마이너 작곡가들의 매력적인 소품들을 담았다. 차그린의 르네상스 모음곡, 아일랜드의 다울랜드 모음곡 등의 고풍스러운 작품들과 플레처의 민요와 피들 댄스, 루이스의 나바레즈 모음곡과 같은 민요 풍의 소박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Naxos 8.557556

비발디:

바순 협주곡 3집

RV 495, 474, 483, 502, 472, 500

Tamas Benkocs, bassoon / Nicolaus Esterhazy Sinfonia / Bela Drahos, cond

다양한 악기들을 위해 500편 이상의 협주곡을 남겼던 비발디. 저음역을 보조하는 악기였던 바순 역시 그의 손길을 거쳐서 화려한 독주악기로 거듭났다. 헝가리의 대표적인 바순주자이자 현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수석을 맡고있는 타마스 벤코츠의 눈부신 기교가 비발디의 쾌활한 악상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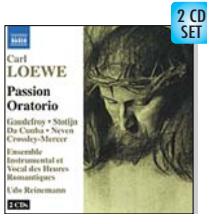


Naxos 8.557738

헨체: 바이올린협주곡 1, 3번, 5개의 밤 소품

Peter Sheppard Skaerved, vn / Aaron Shorr, pf / Saarbrücken Radio Symphony Orchestra / Christopher Lyndon-Gee, conductor

20세기 독일의 대표작곡가인 베르너 헨체. 바이올린협주곡 1번과 3번은 50년이 넘는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작곡가 특유의 예술적인 개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 두 작품 모두 악몽에서부터 명상적인 멜랑콜리에 이르는 폭넓은 감정의 변화상을 담았다. 다섯 소품은 연주를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스케르베트에게 헌정된 작품.



Naxos 8.557635-36(2CDs)

2 CD SET

뢰베: 수난 오라토리오

Heures Romantiques Vocal Ensemble / Heures Romantiques Instrumental Ensemble / Udo Reinemann, conductor

카를 뢰베는 19세기 중반 신고 종교음악 분야에서 활약했던 독일 작곡가이다. '새 계명의 속죄의 희생'이라는 원제목의 수난칸타타는 1829년 멘델스존이 부활시킨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듣고 받은 종교적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바로크적인 외형 안에 로맨틱한 음악이 공존하는 독특한 성격의 종교작품이다.



Naxos 8.660205-06(2CDs)

2 CD SET

마이어베어: 세미라미데

Filippo Adami, te / Fiona Janes, ms / Deborah Riedel, sop / Wurttemberg Philharmonic Orchestra / Richard Bonyngne, conductor

청교도, 아프리카의 여인, 예언자로 유명한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의 대가 마이어베어. 세미라미데는 동명의 로시니의 작품이 유명하나, 마이어베어의 작품 역시 그에 뒤지지 않는 화려한 음악의 성장이다. 2005년 빌트바트의 로시니 페스티벌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벨칸토 오페라의 대부 리처드 보닝이 지휘봉을 잡았다.



Naxos 8.556833

Cinema Classics 2006

브로크백 마운틴, 찰리와 초콜렛공장, 오만과 편견, 킹덤 오브 헤븐, 윌리스와 그로밋 외 최신 영화들에 삽입된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서... 찰리와 초콜렛 공장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브로크백 마운틴의 스페인 기상곡, 오만과 편견에 삽입된 퍼셀의 암텔라자르, 왈라스와 그로밋-거대 토끼의 저주 중의 엘가 교향곡 1번, 매치 포인트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킹덤 오브 헤븐 중의 바흐 모테트 '예수 나의 기쁨' 등등



Naxos 8.559290

조지 크럼: 노래, 드론, 그리고 죽음의 후렴들, 퀘스트

Ensemble New Art / Fuat Kent, conductor

베트남전의 참상을 담은 현악사중주곡 '블랙엔젤'로 음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미국 작곡가 조지 크럼. 바리톤 독창곡인 '노래, 드론, 그리고 죽음의 후렴'은 전자악기와 타악기로 반주하는 독특한 성격의 작품. 퀘스트 역시 어쿠스틱 기타, 아프리카 토크 드럼, 애플래치안 해머 돌시머, 맥시칸 레인 스틱 등의 색다른 악기 조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Naxos 8.559296

플라젤로: 피아노협주곡 1번, 단테의 이별, 콘체르토 신포니코

Tatjana Rankovich, pf / Ukraine National Radio Symphony Orchestra / Rutgers Symphony Orchestra / John McLaughlin Williams & Kynan Johns, conductor

플라젤로는 2차대전 이후 음악계를 풍미하던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양하고 후기낭만음악의 전통을 끝까지 추구했던 미국 작곡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의 최후작인 '콘체르토 신포니코', 청년기 작품인 피아노협주곡 1번, 극적인 소프라노 독창곡인 '단테의 이별' 모두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는 작품들.



Naxos 8.559436

데이빗슨: 천사의 노래, 주 앞에서 다윗이 춤췄네, 바로크모음곡

Finchley Children's Music Group / Buffalo Vocal Ensemble / Ramon Ricker Jazz Quintet / Brad Lubman, conductor / Nicholas Wilks, conductor

유대계 미국작곡가 찰스 데이빗슨의 합창음악들은 바로크 음악에서 유태 포크음악, 재즈 등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영역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어린이합창단을 위한 유대민속음악 편곡인 '천사의 노래', 재즈와 블루스 풍의 성악곡 '다윗은 춤추었네', 바로크 시대의 춤곡 모음곡의 외형을 빌린 어린이 합창곡 '바로크 모음곡' 등의 개성만점의 작품들을 담았다.



Naxos 8.558191-92(2CDs)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 포트레이트

대표작 23곡, 바이오그래피, 작품에 대한 곡가 자신의 해설, 인터뷰 등등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작곡가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 경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작곡가 자신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음반. 작곡가에 대한 로데릭 더넛의 전기와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실려있으며, 자신의 삶과 음악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육성 인터뷰 또한 만나볼 수 있다.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Musicals



Naxos 8.111094

로테 레만 : 리트 레코딩 2집 (1937-40)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발레, 슈만, 브람스, 볼프의 가곡들

20세기 초 빈 오페라 무대를 휘어잡았던 로테 레만. 독일 가곡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 역시 각별하였다. 지난 음반에 이어 슈만, 브람스, 볼프의 대표적인 가곡들을 모은 두 번째 가곡 음반이 선보인다. 특히 여성가수 최초의 녹음인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가 눈길을 끈다.



Naxos 8.111041

박하우스가 연주하는 브람스 (1932-36 recordings)

인터메초, 로망스, 카프리초, 왈츠, 창작주제에 의한 변주곡 외 건반의 사자왕 빌헬름 박하우스가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불꽃 튀는 젊은 기백과 풍부한 서정성을 가득 담은 브람스 작품집.



Naxos 8.111045

드보르작: 교향곡 7,8번 (1935, 1938년 녹음)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 Vaclav Talich, conductor

체코의 위대한 지휘자 바츨라프 탈리히와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드보르작의 후기 교향곡들을 마그 오버트 손의 뛰어난 복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1935년(8번)과 1938년(7번) 런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행해진 녹음들로 이 위대한 지휘자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Naxos 8.120824

젤리-롤 모튼: My Jelly Lord

original 1924-30 recordings

재즈 피아니스트 젤리 롤 모튼은 1920년대 중반, 초기 재즈의 양식을 정립한 재즈의 선구자이다. 그는 뉴 올리언즈 재즈와 유럽 클래식의 전통을 융합시켜 다양한 화성전개와 변화무쌍한 즉흥연주를 펼쳐 보였다. 이 음반에는 초기 재즈의 진수인 'King Porter stomp', 'Dead man blues', 'The pearls', 등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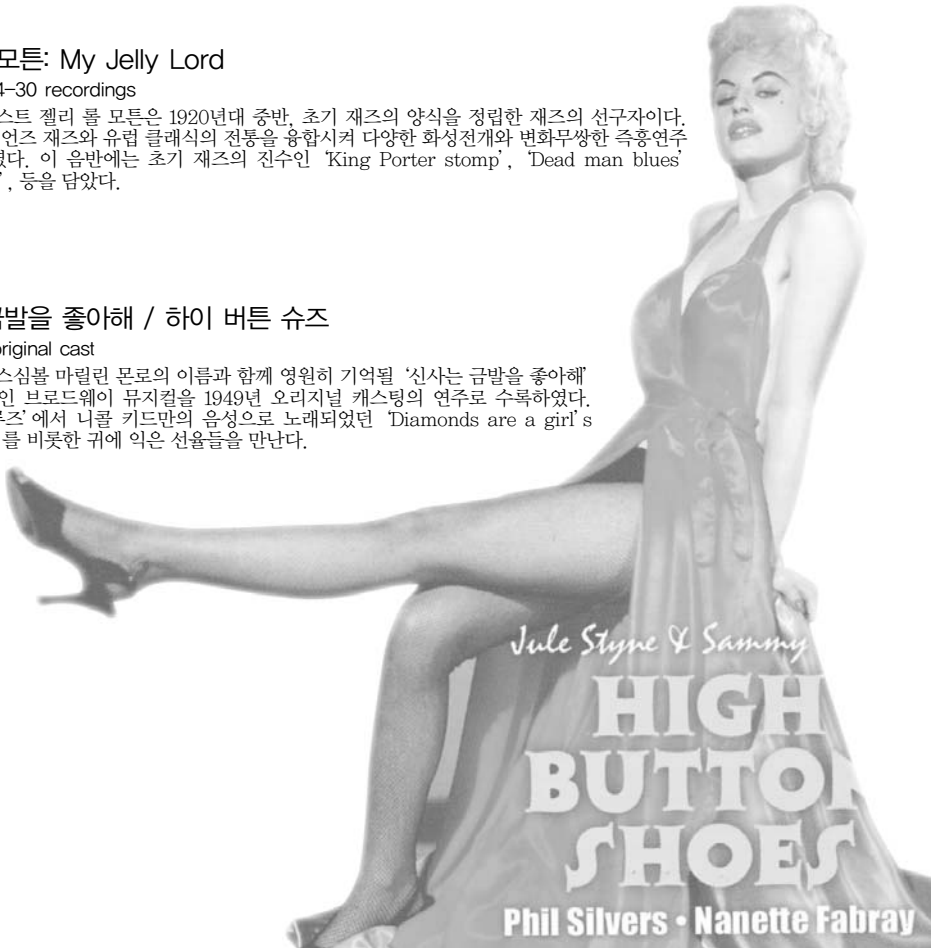


Naxos 8.120793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 하이 버튼 슈즈

Broadway original cast

볼세쉴의 섹스심볼 마릴린 몬로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의 오리지널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1949년 오리지널 캐스팅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영화 '무량루즈'에서 니콜 키드만의 음성으로 노래되었던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를 비롯한 귀에 익은 선율들을 만난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Naxos 8.226021

토마스 코펠: 리코더 작품집

Recorder Concerto 'Moonchild's Dream',
Nele's Dance for recorder & archlute, Los Angeles Street Concerto

미칼라 페트리(recorder) / 라스 한니발(archlute) / 크레머라타 발티카 외

올해 세상을 떠난 코펠은 정통 클래식 교육을 받았으나 장성한 이후 락뮤직에 몰입했고,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년에는 클래식과 락이 결합된 개성적인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는 리코더의 독특한 소노리티를 강조한 작곡가의 북고풍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무드음악과도 같은 친근한 느낌의 '문차일드의 꿈', 리코더와 아치류트라는 예스런 두 악기의 음색이 빚어내는 '넬레의 춤'이 특히 인상적이다. 세계적인 리코더 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류트주자 라스 한니발 부부, 기돈 크레머의 악단 크레머라타 발티카 등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226048

아우구스트 엔나: 성냥팔이소녀 & 알렉산더 체를린스키: 인어아가씨

잉거 담-엔센 & 일바 키흘베르크(sop)/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 합창단/ 토마스 다우스고르

2005년은 덴마크의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과 지휘자 다우스고르는 이를 기념하여 이 작가의 유명한 동화 두 편에 기초한 작품들을 콘서트에 올렸다. 이 신보는 바로 그 실황을 담은 것이다. '성냥팔이소녀'는 덴마크 작곡가 엔나가 1897년에 완성한 1막 오페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듯한 친근한 선율들로 가득한 사랑스러운 작품. 말러, 쇤베르크 등과 함께 독일 후기낭만음악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작곡가인 체를린스키 역시 '인어아가씨'를 소재로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관현악 환상곡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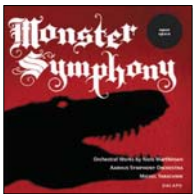


Naxos 8.226516

벤트 로렌첸: 피아노협주곡과 신포니에타, 이탈리아 협주곡, 사냥협주곡

에릭 칼도르프(pf) / 마틴 슈테터(tp) / 닐스 올레 보 요한센(tb) / 클라우스 고틀립(hrn) / 헨릭 후송(ob) / 오르후스 신포니에타 / 쇠렌 한센

로렌첸의 협주곡들에서는 독주악기들의 새로운 음향효과를 추구하는 작곡가의 풍부한 상상력과 더불어 독주악기와 관현악반주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감없이 즐기게 된다.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는 세 개의 악장이 연결된 피아노협주곡, 트럼펫과 트럼본의 한 판 대결이 흥미진진한 이탈리아 협주곡, 혼, 오보에 그리고 중성이 사냥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사냥 협주곡까지 작곡가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담아낸 색다른 재미의 음반.



Naxos 8.226510

닐스 마르틴센: 몬스터 심포니

오르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겔 타바크니

덴마크의 젊은 작곡가 닐스 마르틴센이 들려주는 새로운 음악세계. 심포니 리믹스라는 부제의 몬스터교향곡에서는 제목에 걸맞은 그로테스크한 생명력이 가득 넘치며, 그림의 미학을 음악으로 나타낸 관현악을 위한 파노라마 역시 범상치 않은 작품이다. 작곡가의 신작 오페라 '고해실(告解室)'에 대한 컴팩트한 형태의 관현악 예고편이 이 독특한 음반의 대미를 장식한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ww.naxos.com

LPO

.. 위대한 말러리안 텐슈테트가 남겨놓은 또 하나의 말러 교향곡 1번 !! ..



LPO 0012

말러: 교향곡 1번 <타이탄>, 방향하는 젊은이의 노래

토마스 햄슨(bar)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클라우스 텐슈테트

1985년 2월 12일(교향곡), 1991년 9월 26일(가곡) 실황
영원한 말러리안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완성한 또 하나의 말러 교향곡 1번. 지금껏 해적반으로도 출시되지 않았던 값진 음원이다. 1985년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이번 신보는 웬지 맛있었던 런던 필과의 스튜디오 녹음(1977년)과 뜨거웠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느낌을 주었던 시카고 심포니와의 실황(1990년) 사이의 중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연주다. 이 교향곡의 모태가 되었던 연가곡 '방향하는 젊은이의 노래'가 정상급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로 함께 수록되었다.

텐슈테트의 또 다른 음반들



LPO 0003

바그너:
관현악 하이라이트



LPO 0008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 런던 필하모닉의 새로운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며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젊은 거장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최신보 !! ..**



LPO 0009

차이코프스키: 만프레드 교향곡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2004년 12월 8일 로얄 페스티벌 홀 실황
대문호 바이런의 드라마틱한 서사시 '만프레드'를 표제적으로 표현한 관현악곡인 만프레드 교향곡. 러시아 5인조의 태두였던 발라키레프의 권유로 완성된 이 작품은 원작의 감미롭고도 관능적인 주제들을 작곡가 특유의 풍부한 감성과 유려한 관현악법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해낸 독특한 성격의 작품이다. 얼마 전 쿠르트 마주어의 뒤를 이어 런던 필하모닉의 새로운 상임지휘자로 승격된 젊은 거장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비범한 재능과 강렬한 카리스마가 작품 전반에 걸쳐 유감없이 드러나는 장쾌한 연주.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또 다른 음반



LPO 0004

라흐마니노프:
죽음의 섬 & 심포닉 댄스



Soli Deo Gloria(SDG)



SDG 121(2CDs)

JS 바흐 – 칸타타 26집
The Monteverdi Choir / The English Baroque Soloists
Sir John Eliot Gardiner

[CD1] 성령강림절을 위한 칸타타

BWV172 Erschallet, ihr Lieder, erklinget, ihr Saiten / 노래소리여, 울려 퍼지라
BWV59 Wer mich liebet, der wird mein Wort halten I /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지니 I
BWV74 Wer mich liebet, der wird mein Wort halten II /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지니 II
BWV34 O ewiges Feuer, O Ursprung der Liebe / 오 영원한 불길, 사랑의 샘

Lisa Larsson(sop) / Nathalie Stutzmann & Derek Lee Ragin(alt) / Christoph Genz(te) / Panajotis Iconomou(bass)

[CD2] 성령강림절 이후 첫 월요일을 위한 칸타타

BWV173 Erhöhtes Fleisch und Blut / 고귀한 살과 피
BWV68 Also hat Gott die Welt geliebt / 이토록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도다
BWV174 Ich liebe den Höchsten von ganzem Gemüte / 나 지극히 높은 자를 사랑하노라

Lisa Larsson(sop) / Nathalie Stutzmann(alt) / Christoph Genz(te) / Panajotis Iconomou(bass)
Live recordings in Long Melford (2000년 6월 11, 12일)



Wigmore Hall Live Series

1901년 개관 이후 세계적인 리사이틀 홀로
확고한 명성을 누리고 있는 런던의 위그모어 홀.
유서 깊은 이 연주회장서 펼쳐졌던 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의 공연상황이
위그모어홀 라이브 시리즈를 통해 음반으로 부활하였습니다.



WHLive 0009

조이스 디도나토 리사이틀 라이브 : 베니스로의 여행

조이스 디도나토, 메조소프라노 / 줄리우스 드레이크, 피아노

〈수록곡〉

로시니: 베니스의 보트 경주 / 헤드: 베니스의 노래 / 포레: 베니스의 다섯 멜로디 / 한: 베네치아
앙코르: 헨델 줄리오 체사레 중 아리아, 로시니 라 체네렌들라 중 아리아
2006년 1월 16일 위그모어 홀 실황

새로운 로시니 히로인으로 유럽 일급 오페라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이탈리아 베니스를 공통적으로 다룬 네 작곡가의 가곡들로 색다른 리사이틀 무대를 가졌다. 저명한 가곡 반주자 줄리우스 드레이크가 반주를 맡은 이 리사이틀을 통해 이 젊은 가수의 뛰어난 재능이 오페라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정통 가곡 장르에서도 훌륭히 발휘될 수 있을 확인하게 된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지그베르트 람페의 모차르트 건반음악 전집, 그 네 번째 음반!!



MDG 341 1304-2

모차르트 : 건반작품 전집 4집
소나타 K333, K284, 전주곡과 푸가 K394, 건반소품 K15mm, 15oo, 15 pp, 15qq, 건반소품 K626, '알바의 아스카니오' 중 발레
지그베르트 람페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의 세 종류의 옛 건반악기들을 동원하여 모차르트의 건반 작품 전체를 탐험 중인 독일의 중견 건반주자 지그베르트 람페, 이번 네 번째 음반에서는 모차르트가 9세 전후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다섯 개의 건반소품 연작 K15가 최초로 녹음되었다. 이 값싼 소품들은 어린 소년의 천진함과 음악적 천재성을 함께 드러낸다.

모차르트 :
건반작품 전집 1집
환상곡 K475,
소나타 K457,
테마와 다섯 변주 K54,
미뉴에트 K2,
소나타 K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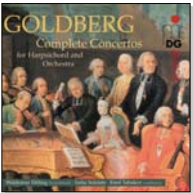
MDG 341 1301-2

모차르트 :
건반작품 전집 2집
소나타 K576,
12, 332, 570
미뉴에트 K15i, 15k

MDG 341 1302-2

모차르트 :
건반작품 전집 3집
소나타 K311 & K309,
아다지오 K356, 12
변주곡 K179 & K354

MDG 341 1303-2



MDG 601 0250-2

요한 골드베르크(1727-1756) : 두 개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발데마르 뢰링, 하프시코드 / 소피아 솔로이스츠 / 에밀 타바코프, 지휘

골드베르크라는 이름이 귀에 익지 않은가? 그렇다.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탄생과 관련이 있었던 바흐의 제자의 이름이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당대의 그는 건반음악에 있어서 바흐의 아들들에 비견될만한 인물이었다. 자신의 작품보다는 위대한 스승덕분에 후대에 영원이 이름을 남긴 이 재주 좋은 사나이의 음악적 재능은 어떠한지를 이 음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의 정상급 플루티스트 14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환상의 앙상블



MDG 308 1393-2(일본CD)

Flute Wave 플루트의 물결

헨델: 시바여왕의 도착 / 라벨: 쿠프랭의 무덤 /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전주곡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중 스케르초 / 바흐: 하프시코드 협주곡 BWV1060 / 디너쿠: 호라 스타카토 / 맨시니: 핑크 팬드 모음곡

14 베를리너 플루티스텐 (14 베를린 플루티스트)

14 베를리너 플루티스텐은 그 이름 그대로 베를린에 기반을 둔 일급 오케스트라들의 플루트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비상설 앙상블로, 베를린 필의 수석이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안드레아스 블라우가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피콜로에서 더블베이스플루트에 이르기까지 플루트족의 모든 악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내는 독특한 소노리티가 귀에 익은 애청곡들을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플루트 애호가들의 필청반이며, 오디오 파일용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 14 베를리너 플루티스텐 앨범 소개 —

안드레아스 블라우: 예술 감독 /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 토마스 베이아: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수석 / 볼프강 다스바흐: 베를린 도이체오퍼 피콜로주자 / 루돌프 뢰블라: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수석 / 볼프강 뢰셀데: 베를린 필하모닉 피콜로주자 / 크리스티나 파스벤다: 베를린 코미세오퍼 수석 / 요한 호프만: 베를린 도이체오퍼 수석 / 크리스티나 후브가: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단원 / 히코 이이주카: 실내악전 문연주가 / 프라우게 레오폴트: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단원 / 로베르트 레르호: 베를린 도이체오퍼 수석 / 울프 디에터 샤프: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수석 / 베아테 가브리엘라 슈미트: 프리랜서 플루티스트 / 베르너 타스트: 베를린 코미세오퍼 수석 / 비르기트 로트(객원): 뒤셀도르프 심포니 피콜로주자



MDG 644 1391-2

프랑크: 현악사중주 D장조 / 쇼송: 현악사중주 Op.35

슈피겔 현악사중주단

현악사중주는 일반적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소수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는 장르이지만,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었다. 많은 프랑스 작곡가들이 이 장르의 작품을 양산하였으나, 그중 가장 돋보이는 두 작품이 바로 이 음반에 함께 수록되었다. 이미 두 작곡가의 피아노사중주, 피아노오중주 음반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벨기에의 슈피겔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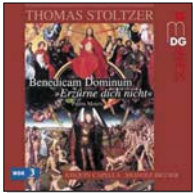


MDG 303 1414-2(일반CD) / 903 1414-6(Hybrid SACD)

슈만: 피아노사중주 Op.47, 피아노사중주(1829년작)

트리오 파르나수스(하리올프 솔리흐티히, 비올라)

실내악 명가 MDG의 피아노 trio 장르를 책임졌던 trio 파르나수스가 슈만의 피아노중주에 도전하였다. Op.47은 피아노오중주 Op.44의 유명세만큼은 아니지만, 작곡가가 남긴 가장 뛰어난 실내악 레퍼토리의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반면 슈만이 19세에 완성한 C단조 사중주는 그동안 연주불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요아힘 드라하임의 교정 작업을 거친 뒤 최초로 녹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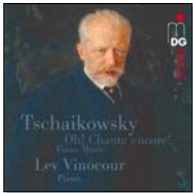


MDG 605 1394-2

토마스 슈톨처: 시편 모테트 & 6성부 마그니피카트

조스캥 카펠라 / 마이클 브뤼저, 지휘

조스캥 카펠라가 들려주는 르네상스 폴리포니 종교합창곡의 정수. 토마스 스톨츠는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작곡가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도 플랑드르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물이다. 중부독일 출신의 그는 브레슬라우(현 폴란드의 브로클라브)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비록 변방에서 완성된 곡들이나 그의 시편 모테트들과 마그니피카트는 조스캥이나 그 제자들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대위적 구조와 탄탄한 성부간의 짜임새를 자랑한다.



MDG 604 1397-2(일반CD) / 904 1397-6(Hybrid SACD)

차이코프스키 : 〈사계〉 외 피아노 작품들

수록곡: 사계 전곡, 무궁동, 둠카, 에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리스트 편곡) 외 레프 비노쿠르 (1901년산 슈타인웨이)

12곡의 피아노연작 '사계'는 차이코프스키의 가장 널리 알려진 피아노작품이다. 전곡 모두가 각 달의 정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6월(벚 노래)과 11월(트로이카)이 특히 유명하다. 그 외에도 베버의 소나타의 론도악장을 편곡한 '무궁동',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에 대한 리스트의 피아노편곡, 러시아색채가 물씬 풍기는 '둠카' 등을 수록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피아니스트 레프 비노쿠르는 바이마르 리스트 음악원의 객원교수이자, 부조니 콩쿠르와 클라라 슈만 콩쿠르 입상자 출신의 중견연주자이다.



MDG 345 1392-2

피아졸라: 목관 오중주로 연주하는 피아졸라의 탱고 누오보

수록곡: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탱고의 역사, 탱고 발레, 탱고를 위한 4 마알롯 퀸텟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혼, 바순)

고급의 다양한 클래식 레퍼토리들을 목관앙상블 버전으로 편곡연주해온 마알롯 목관 오중주단이 피아졸라의 탱고음악에 도전하였다. 저속한 음악으로 멸시받던 탱고라를 단순히 현대 클래식의 한 장르로 승격시켰던 피아졸라의 탁월한 음악적 감각이 다섯 관악기들의 개성적인 사운드를 통해 더욱 화려하게 채색되었다. 작곡가의 대표작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탱고의 역사', '탱고를 위한 4', '탱고발레'를 수록하였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에서 마알롯 퀸텟은 오리지널 버전을 능가하는 풍부한 색채감을 바탕으로 대단히 감성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MDG 613 1413-2

솔라이어마하: 앙상블 뮤직

수록곡: Auto Werk mit Hup Raum(앙상블과 테이프를 위한 음악) / Obophon(6대의 오보에를 위한 음악) / 비올라와 베이스 클라리넷을 위한 3개의 소품 / Netz Werk(앙상블과 테이프를 위한 음악) / Merseburger Ouverture mi F.L.(오르간 독주곡)

작센 관악앙상블, 앙상블 아방가르드, 미카엘 쇤하이트(오르간)

현대음악 전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슈테판 솔라이어마하의 개성적인 창작곡들을 담은 음반. 통령국제음악제를 통해 우리에게도 친근한 다섯 음악가는 오보에 육중주나 비올라와 베이스 클라리넷 이중주 등의 이색적인 악기편성을 통해 색다른 소노리티를 창조하거나, 테이프에 녹음된 사운드와 실제악기의 연주음을 교묘하게 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메르센부르거 서곡은 최근 개축된 메르센부르거 대성당의 리스트 오르간을 위해 완성한 작품.



MDG 309 1384-2

텔레만: 콘체르토와 체임버 뮤직 4집

수록곡: 콘체르토 TWV 43:G5, 52:B1, 43:a3 / 서곡 TWV55:E2 / 소나타 TWV41:D1

무지카 알타 리파

포노포럼으로부터 '중독될 만한 음반'이라는 호평을 들으며 순항중인 무지카 알타 리파의 텔레만 시리즈의 네 번째 음반. 리코더, 오보에, 바이올린의 기교적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콘체르토 TWV43:a3을 필두로 텔레만 특유의 발랄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의 다섯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그간 바흐, 비발디를 비롯한 바로크 레퍼토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왔던 독일의 중견 시대악기 앙상블인 무지카 알타 리파의 뛰어난 호흡과 우수한 연주력이 빛을 발한다.



www.proprius.com

Proprius



Proprius PRSACD2036

Dancing Bach (Hybrid-SACD)

수록곡 - JS 바흐: 관현악 모음곡 1, 2번 / 바이올린 소나타 BWV1021 / 무반주 첼로모음곡의 단편(바순 연주) /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의 단편 / 인벤션 일부(비올라와 바순 이중주 버전)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바흐 작품 컬렉션. 소편성으로 실내악적인 정치함을 강조한 두 편의 관현악 모음곡 외에도 솔로 악기를 위한 바흐의 인기작들을 색다른 악기조합을 통해 연주하고 있다. 바순으로 연주하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들의 단편들이나, 비올라로 연주하는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비올라와 바순 이중주로 연주하는 인벤션들이 바흐 음악의 무궁무진한 음악적 변화가능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Proprius PRSACD7742

The Birds and the Spring (Hybrid-SACD)

브론스, 다캥, 북스테후데, 비에르네, 파헬벨, 스베를링크, 비발디, JS 바흐, 메시앙의 오르간 작품들 베틀 베리, 스톡홀름 마테우스 교회 오르간과 외스테르예틀란트 불가 교회 오르간

이 음반은 프로프리우스가 1974년에 발매한 전설적인 두 오르간 레코딩 LP를 SACD 포맷으로 합본한 것이다. 스웨덴이 자랑하는 두 대의 일급 오르간들의 화려한 사운드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급 연주자인 베틀 베리의 우수한 연주가 오르간 음악의 참 매력을 심본 느끼게 만든다. 오르간 음악 애호가는 물론 오디오 마니아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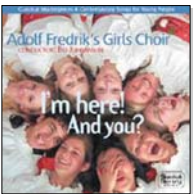


SCD 1127-28(2CDs)

오토 올손: 오르간 작품집

랄프 구스타프손, 린코핑 대성당 오르간

오토 올손(1879-1964)은 오르간 음악과 종교합창곡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스웨덴 작곡가이다. 그의 오르간 작품들은 바흐 유래의 전통적인 외형 속에 후기낭만시대의 풍부한 감성이 담긴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스톡홀름 왕립음악원 오르간 교수인 랄프 구스타프손이 연주를 맡았고, 작곡가 자신이 제작에 관여했던 린코핑 대성당의 오르간이 연주에 활용되었다.



SCD 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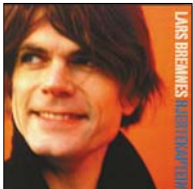
아돌프 프레드릭 소녀 합창단 - I'm here! and you?

아돌프 프레드릭 소녀 합창단이 노래하는 민요와 애청 합창곡들

스웨덴이 자랑하는 아돌프 프레드릭 소녀합창단의 해맑은 음성으로 감상하는 북구의 민요와 애청 합창곡들이 사랑스럽다. 스웨덴과 핀란드 각 지방의 독특한 색채의 민요들과 함께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드뷔시의 봄을 노래함, 그리고 색다른 미감으로 편곡된 바흐/구노의 아베 마리아 등이 귀를 즐겁게 한다. 우리 귀에 너무나 친숙한 프랑스 민요 자크 페레의 영여 버전도 함께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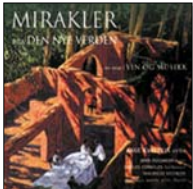


KKV(Kirkelig Kulturverksted)



FXCD 302

라르스 브렘네스(Lars Bremnes) : Hjertekaptein(마음의 통솔자)
노르웨이 포크의 보석음악 4년만에 내놓은 라르스의 야심작! 유명한 노르웨이인 포크 가수 카리 브렘네스의 남동생이며 뛰어난 재능의 아티스트인 라르스 브렘네스가 2006년에 내놓은 최근 신보! 2002년의 히트작 RØERKISTEBUNN의 후속으로 4년만에 출시한 야심작이다. 하지만 음악은 매우 소박하다. 라르스 브렘네스 노래의 주제는 사랑에서 정치적 이슈, 그리고 실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편이다. 이번 음반에도 타이틀 곡인 '마음의 통솔자(Hjertekaptein)'를 시작으로 '닻(Anker)', '힘든 세상(Hard verden)', '비슷한 침대(Samme seng)', '큰형(Storebror)', '기도(Bonn)' 등 일상의 주제와 얘기들을 의미심장하게 푼 노래들이 담겼다. 마지막 트랙의 '타다 남은 것들(Glør)'은 라르스 음악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분위기가 만점의 보컬이다! 히르켈리하는 탁월한 녹음 때문에 노르웨이의 ECM으로 불린다. 라르스가 바로 내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생생하고 자연스런 음향을 자랑한다.



FXCD 303

아게 크발베인(Aage Kvalbein)
Miracles from the new world(새로운 세계의 기적)
연주 : Aage Kvalbein
KKV가 인기리에 발매하고 있는 '기적 시리즈'의 제 4탄이다. 대중적인 선율과 향기로운 와인을 결합시킨 기적 시리즈(프랑스 기적, 이탈리아 기적, 스페인 기적)는 아주 성공적인 컨셉트였다. 와인인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시리즈에 비평가나 일반 애호가들은 열광했다. 지금까지의 음반과 마찬가지로 이번 음반도 음악, 와인, 풍경, 그리고 땅과 환경의 문제가 주제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캘리포니아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찍어진 음악들이고, 녹음은 2006년 1월 칠레에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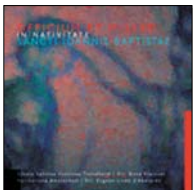
FXCD 304

헤닝 소메로(Henning Sommerro) : Sullabullyam
연주: 헤닝 소메로
헤닝 소메로가 또다시 친구인 Edvard Hoem이 써준 텍스트로 매혹적인 노래를 만들었다. 1970년대 이래 헤닝 소메로와 에드바르트 호엠은 환상적인 듀오였다. 그들은 성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아주 인상적인 찬가나 여러 가지 노래들을 불렀는데, 지금도 "The Impoverished God"이나 "Evening Hymn"같은 찬가가 널리 사랑받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직감된다. 피아노 반주를 하며 노래하는 헤닝 소메로는 이 음반에서 15곡의 찬가와 노래를 부른다. 플루트도 등장하고 한 트랙에서는 호엠이 자신의 시를 암송하기도 한다. 특히 '달콤한 여름의 향기를 잡아라(Fang sommarens ange)'란 노래는 노르웨이인들이 좋아한다. 좋은 시와 좋은 선율이 지닌 아름다움이나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음반에 완전히 매료될 것이다.



FXCD 305

토니에 운스타드(Tonje Unstad) : Sett(보이는 것)
연주: 토니에 운스타드
KKV가 발굴한 아주 중요한 신예 스타의 앨범. 북 노르웨이 출신의 25세 가수 겸 작곡가 토니에 운스타드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가사도 쓰고 노래도 만든다. 보통 기타를 치며 혼자 노래하지만 이 음반에서는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트럼펫, 플루트,호른, 트럼본까지 등장시켜 매혹적인 노래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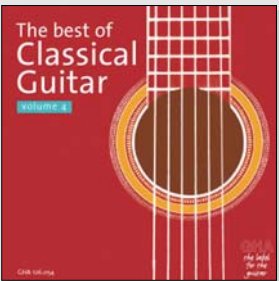
FXCD 306

성 요한을 위한 오피시움과 미사(Schola Sanctae Sunnivae)
Officium et missae in nativitate Sancti Ioannis Baptistae
연주: Schola Sanctae Sunnivae / Hartkeriana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여성 합창단과 암스테르담 남성 합창단이 성 요한 오피시움 및 미사곡을 녹음했다. 여성 합창단(Schola Sanctae Sunnivae)은 1992년에 창단되었고, 암스테르담의 남성 합창단(Hartkeriana)은 1994년에 창단되었다. 둘 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합창단이며 지금까지 몇몇 성공적인 음반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그레고리오 성가 CD를 남성합창단과 여성 합창단이 함께 연주한 음반을 들을 기회는 매우 드물다.



www.gha.com

G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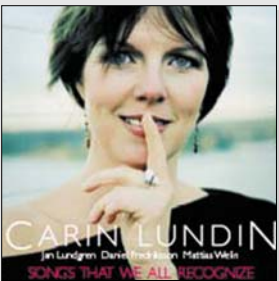
GHA 126.054

세계 최고의 클래식 기타 레이블 GHA의 베스트 제 4집
이미 정상의 클래식 기타 레이블로 자리매김한 GHA의 음반은 화려한 연주자와 독창적인 기획과 레파토리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본 음반은 하나같이 수작인 GHA의 음반중에서도 다시 선별하여 재구성한 베스트 시리즈의 그 네번째이다. 연주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 출신의 여류 기타리스트 Wang Yameng, 현대음악의 전도사 Edudardo Isaac, 내한공연을 앞둔 인기최고의 Roland Dyens, 레오 브라워 해석의 권위자 Costas Cotsiolis, LASQ의 멤버 Scott Tennant, 세계 최고의 기타 3중주단 Trio de Cologne등 가히 클래식 기타계의 별들의 잔치이다.



www.prophonerecords.se

PROPHONE



PCD 078

Carin Lundin
Songs that we all recognize
얼마 전 일본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았던 스웨덴의 간판 재즈 보컬리스트 카린 룬딘의 2005년 신작! 프로폰에서 두번째 앨범을 발표하는 그녀는 피아니스트 안 룬드그렌이 이끄는 트리오와 함께 대중들에게 친숙한 스탠다드를 노래하였다. 깔끔하면서도 이지적이며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카린 룬딘의 보이스와 서정성과 스윙감을 적절하게 조화한 안 룬드그렌의 피아노 연주가 최상의 결합을 이루어낸 수작! 담백하면서도 강한 호소력을 담아낸 I'll Be Around는 북유럽 재즈의 진수로 강력 추천곡!



www.melody.su

MELODIYA



Maria Grinberg

마리아 그린베르크(1908-1978)는 마리아 유디나와 더불어 20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던 소련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명교수 블루멘펠트와 이금노프를 사사하였고, 1935년 전 소련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곡가는 베토벤이었다. 극심한 냉전체제하에서 서구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베토벤 치클루스를 통해 60년대의 주요한 베토벤 해석가로 명성이 높았다. CD로 그의 연주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구전되는 명성만 남았었지만, 멜로디야를 통해 다시금 복원되기 시작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의 길이 활짝 열렸다. 여성의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터치로 연출해낸 베토벤의 소나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1. Beethoven: Piano Sonata Nos. 4, 5, 6
MEL CD 10 00824
Recorded in 1964 & 1965
2. Beethoven: Piano Sonata Nos. 7, 8 (Pathétique), 9, 10
MEL CD 10 00825
Recorded in 1965 & 1966
3. Beethoven: Piano Sonata Nos. 1, 2, 3
MEL CD 10 00823
Recorded in 1966 & 1965
4. Beethoven: Piano Sonata Nos. 11, 12, 13, 14
MEL CD 10 00826
Recorded in 1964, 1965, 1966
5. Beethoven: Piano Sonata Nos. 15, 16, 17
MEL CD 10 00827
Recorded in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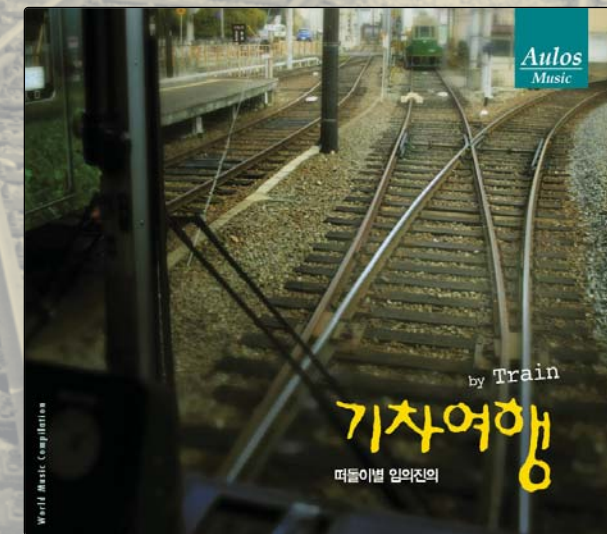
〈여행자의 노래〉로 독특한
월드뮤직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시인, 수필가, 집시 가수
임의진 발發 특급열차!

기차 · 비행기 · 배 · 버스 여행 4가지 여행담의 제1탄!

기차여행

by Train

떠돌이별 임의진의



세계 곳곳에서 그러모은 희귀곡들과 이국의 기차에서 아껴들은 노래들,
김두수의 신곡 〈돌아오라 소렌토로〉,
박남준 시인의 시낭송, 사토 유키에의 〈마지막 기차〉,
북한 여가수 이선주와 에디 리더가 함께 노래한 초희귀 음원 〈자장가-별〉,
쿠바의 음유시인 사라 곤잘레스의 절창 〈내게 드리운 손길〉,
임의진의 목청으로 듣는 김광석의 명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18편의 저릿저릿한 글들, 사진작가 김홍희의 재킷 사진까지
여기에 세계 기차여행의 모든 준비물, 모든 노선표가 있다.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www.aulosmusic.co.kr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_922_0100 팩스 02_922_2522



www.sunmoodang.com

‘유 콜 잇 러브’의 가수

카롤리네 크뤼거 Karoline Kruger

노르웨이 가수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이름에 속하는 카롤리네 크뤼거.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면 우선 소피 마르소 주연의 ‘유 콜 잇 러브(You call it love)’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로서의 이미지가 따라붙는다. 실제로 그녀는 이 한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20년에 가까워오는 경력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녀가 내놓은 앨범은 1988년 데뷔앨범 ‘Fasetter’를 포함해 여섯 가지 정도. ‘모든 삶의 시간(En Gang I Alles Liv)’은 카롤리네 크뤼거의 그 순수한 포크가수로서의 모습을 확인케 하는 앨범. 우리의 팝, 포크 팬들의 영원한 명곡인 재니스 이안의 ‘At seventeen’, ‘tea & symphathy’ 등을 크뤼거

특유의 애조 띤 목소리로 들려준다. 그녀가 서정적인 자신의 색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앨범은 1993년의 ‘새의 가슴(Fuglehjerte)’이었다. 현악기를 적절하게 사용했고, 소절마다 감정을 최대한 이입시킨 보컬이 인상적이다. 타이틀곡을 비롯해 음반전체에서 크뤼거의 곱고 섬세한 목소리가 야릇한 슬픔을 전한다. ‘또 다른 이야기(Den Andre Historien)’는 1996년에 발표한 4집 앨범. 때 묻지 않은 노르웨이 팝 음악의 현주소를 맞볼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음반이다. ‘야고보 미사’ 삼부작에서는 그녀가 직접 음악을 썼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오슬로에서 첫 공연을 가진 이래, 몇몇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방송으로



내보내지기도 했었다. 그녀의 최근 앨범인 ‘두 목소리(De to Stemmer)’는 노르웨이 시인인 안드레 비예르케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2004년에 출시된 이 앨범도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콘서트 실황 가수로서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노래의 형식이 간결하든 극적이든 그녀의 공연은 항상 서술형식과 함께 구성된다. 극장에

서 노래들은 음악과 함께 매력적인 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녀의 작곡가로서나 가수로서나 그런 종류의 노래들이 자신의 표현영역을 넓혀주었다고 믿는다. 크뤼거의 남편도 유명한 아티스트, 닥슬란이다. 현재 남편, 두 딸과 함께 베르겐에서 살고 있다.



카롤리네 크뤼거의 발매 음반들...



FXCD 109

Karoline Kruger :
en gang i
alles l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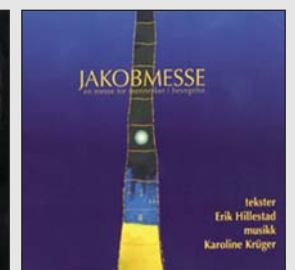
FXCD 130

Karoline Kruger :
fuglehjerte



FXCD 169

Karoline Kruger :
Den andre
historien.....



FXCD 265

JAKOBMESSE :
en messe for
mennesker i
bevegelse

BBC
opus AR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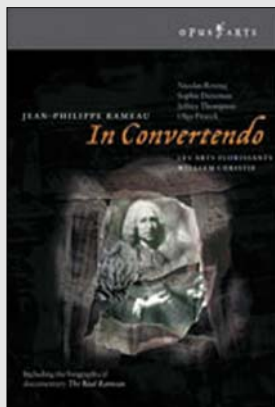
BBC / Opus Arte DVD



BBC/Opus Arte
OA 0953D

로시니 : 라 가제타

노벨상 수상작가 다리오 포가 연출한 로시니 전성기의 희가극. 다리오 포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전통을 잇는 이탈리아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음악가이다. 좌파 성향을 지녔지만 투사형이 아닌 풍자형 작가이며 놀라운 희극적 감각과 이단아적 상상력으로 유럽 문화의 한 축을 대표하는 천재로 불린다. 199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광대가 이 상을 받기는 처음'이라는 재기 넘치는 연설로 큰 화제를 낳았다. 포는 오페라 연출도 한다. 특히 관심분야는 포와 여러 면에서 통하는 19세기 오페라의 천재 조아키노 로시니이다. <라 가제타>는 최고의 희가극 <세비아의 이발사>에 이어서 작곡된 전성기의 작품이다. 신문 광고로 사윗감을 구하려는 돈 폼포니오,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그의 딸 리제타의 애기를 로시니 특유의 극장 감각으로 그려냈다. 다리오 포는 연출만이 아니라 무대 장치와 의상까지 직접 맡아서 모든 면에서 창의적인 무대를 꾸몄다. 19세기와 20세기의 극예술 분야에서 기발함에 관한 한 최고의 두 천재가 만난 경이로운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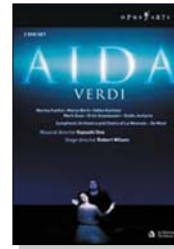


BBC/Opus Arte
OA 0956D

라모 : In Convertendo

윌리엄 크리스티 / 레자르 플로리상

위대한 바로크 작곡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영상물. 기발한 연출과 생기발랄한 연주로 라모 오페라들의 참 맛을 현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설파해온 윌리엄 크리스티. 이번에는 오페라가 아닌 작곡가의 종교합창곡의 걸작인 그랑 모테트 <In Convertendo>를 통해서 라모 음악에 대한 자신의 탁월한 감각을 뽐내고 있다. <In Convertendo>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몇 안 되는 라모의 모테트 중 하나로 작곡가 리옹에서 활동하던 즈음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곡이다. 시편 125장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을 텍스트로 취한 이 모테트는 솔로, 중창, 합창 사이의 적절한 밸런스와 더불어 작곡가 특유의 세련된 관현악 반주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특히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푸가 합창은 바흐의 그것에 비견할 만하다. 소피 다느망, 올가 피타르치, 제프리 톰슨, 니콜라 리벵 등 크리스티와 꾸준히 호흡을 맞추어온 일급 바로크 성악가들이 솔로를 나누어 맡았고, 레자르 플로리상의 합창파트와 기악파트 모두가 최고의 앙상블로 지휘자의 뛰어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라모의 대표적인 실내악 편성의 작품인 <Pieces de Clavecin en concert>의 연주 영상과, 이 위대한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관한 한 시간 분량의 음악다큐멘터리 <The Real Rameau>가 함께 수록되었다.



BBC/Opus Arte
OA 0954D

베르디 : 아이다

베르디의 장대한 오페라가 실내악적인 투명성을 획득하다

베르디의 <아이다>는 야외 오페라의 단골 레퍼토리로 인기가 높다. 그만큼 스케일이 크고 음악도 장대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런 전통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해석으로 이 오페라에 접근한 공연이 있다. 2004년 브뤼셀의 유명한 모네 가극장에서 미국 출신의 로버트 윌슨이 연출한 실황이 그것이다. 윌슨은 단순화된 무대와 푸르스름한 조명, 지극히 절제된 느린 움직임을 통하여 그리스 비극 또는 일본 전통극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아이다>조차 이런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안토니오 파파노의 후임으로 2002년부터 모네 가극장의 지휘를 맡고 있는 가즈시 오노가 음악적인 면에서도 윌슨의 의도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아이다>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실내악적인 투명성이 무대를 지배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대주 노르마 판티니(아이다)와 마르코 베르티(라다메스)가 출연하고 특히 헝가리의 메조소프라노 일디코 콤포지(암네리스)가 호평을 받았던 실황이다.



BBC/Opus Arte
OA 0949D

바그너 : 신들의 황혼

하인츠 크루제(지크프리트) / 진닌 알트마이어(브륄힐데) / 쿠르트 라이들(하겐) / 볼프강 쉰(군터) / 에바 마리아 분트슈(군트루네) / 안네 예방(발트라우테) / 헨크 슈미트(알베리히) / 헤베 덱스트라 / 이를가르트 빌스마이어 / 키르시 티호넨(노른) / 가브리엘 폰타나(보글린데) / 한나 새어(벨군데) / 캐서린 켄(플로스힐데) / 하르트무트 헨헨 /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반지 공연사의 굵직한 일획을 그었던 피에르 오디의 네덜란드 오페라 프로덕션

'니벨룽의 반지'의 대미를 목격하게 장식하는 작품인 '신들의 황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주시간 5시간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대작이다. 영웅 지크프리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음모와 배신, 모든 혼란상을 마무리 짓는 브륄힐데의 영웅적인 마지막과 신들의 몰락, 그리고 라인의 물결 속으로 되돌아가는 반지의 최후가 바그너의 장엄한 음악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유럽의 일급 연출가 피에르 오디의 1999년 네덜란드 오페라 프로덕션은 바그너의 작품에 갖는 철학과 신비로움, 그리고 서정성을 단단하게 하나로 통합해내었다. 오디의 무대연출은 조각가 조지 티시핀의 놀라운 무대미술과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에이코 이시오카의 개성적인 의상을 통해 한층 치밀한 예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며, 하르트무트 헨헨이 지휘하는 네덜란드 필하모닉의 선 굵은 연주와 일급 바그너 가수들의 뛰어난 열연이 수준높은 음악적 완성도 또한 보장한다. 캐스트 갤러리과 일러스트레이터 시습시스, 그리고 네덜란드 방송국(VPRO)에서 제작한 '신들의 황혼' 해설 영상물이 부가영상으로 제공된다.



BBC/Opus Arte
OA 0955D

브리튼 : 글로리아나

오페라의 흥미진진한 무대 뒤 움직임까지 포착한 에미상 수상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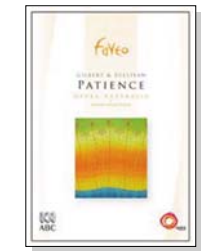
16세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국력신장에 헌신한 위대한 군주였다. 그러나 여왕 역시 인간이었던지라 몇 명 신하가 여왕의 연인 자리를 거쳐 갔다. 그중 마지막이 35세나 연하의 로베르 드브루(Robert Devereux)였다. 여왕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반역죄로 처단했는데, 이 유명한 얘기는 도니체티의 <로베르토 데브루>라는 오페라로 남았고,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 역시 현재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를 축하하여 1953년에 다시 다루었다. 1999년 영국의 오페라 노스(Opera North) 실황이며, 그저 공연 실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무대 이면의 급박한 진행 과정까지 대단히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로 잡아냈다. 영국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군림한 조세핀 바스토우는 완벽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구현했다. 에미상을 수상한 창조적인 영상물이며 화질과 음질도 최신 일급 영화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GLORIANA



BBC / Opus Arte DVD

❖ Faveo Series ❖



BBC/Opus Arte
OAF4012D

길버트 & 설리번 : 페이션스

소꿉을 짜는 순진한 처녀 페이션스의 사랑 찾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원조로 평가받는 길버트-설리번 오페레타의 여섯 번째 작품. 오스카 와일드로 대표되는 19세기 영국 문학의 탐미주의적 예술 성향을 풍자한 오페레타이기도 하다. 마을 처녀 20명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탐미파 시인 번손과 전원파 시인 그로스베너. 그러나 이 두 시인은 배운 것도 없고 소꿉을 짜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페이션스란 처녀에게 반한다. 그러나 페이션스는 “사랑이란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믿으며 남자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여인. 과연 누가 페이션스의 사랑을 차지할 것인가? 길버트-설리번 오페레타의 특징인 명쾌하고 친근한 선율, 휴머니즘에 입각한 전개, 영국 사회에 대한 풍자가 동시에 녹아들 어간 재미있는 작품이다. 크리스틴 터글러스(페이션스), 안소니 월로우(그로스베너), 데니스 올슨(번손)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저력을 과시한 1995년 실황.



BBC/Opus Arte
OAF4013D

아당 : 지젤

호주 발레단의 보석 크리스틴 왈쉬와 케빈 코가 출연한 <지젤>
1841년 파리에서 초연된 <지젤>은 낭만 발레의 대명사로서 신분을 속인 귀족 알브레히트를 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시골 처녀 지젤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막은 서정적인 독일 전원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사랑과 파국, 그 충격으로 실성해서 죽는 지젤을 그리고 있으며, 2막은 지젤의 무덤이 있는 으스스한 숲을 찾아온 알브레히트와 그를 죽이려는 빌리(처녀 귀신들)의 복수, 빌리의 일원이 되었지만 알브레히트를 용서하는 지젤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발레단이 이 작품을 주요 레퍼토리로 공연하는데,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있는 호주 발레단의 1990년 실황 또한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특히 이 발레단이 간판 스타인 크리스틴 왈쉬(지젤)와 케빈 코(알브레히트)는 볼쇼이 발레와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에도 객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는 빼어난 무용수이며 두 사람의 조화가 지젤의 고전적 풍모를 잘 살렸다.



BBC/Opus Arte
OAF4014D

브리튼 : 나사의 회전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으스스한 분위기의 ‘유령 오페라’
영미 문학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헨리 제임스의 대표작 <나사의 회전>에 기초한 벤자민 브리튼의 걸작 오페라이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의 ‘유령 오페라’이며, 제멋처럼 나사가 서서히 회전하면서 압박해 쫓아오는 느낌의 심리극이기도 하다. 한 젊은 여인이 시골 두 자매의 가정교사로 부임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죽은 전임 가정교사 및 하인의 유령과 소통하고 있음을 깨닫고 악령과 대항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엇이 진실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는다. 두 아이의 노래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포인트임을 감안하여 오케스트라는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제와 거대한 15개의 변주가 오페라를 이끌어간다. 호주 오페라단의 1992년 실황이며 거장 엘리야 모진스키의 무대장치와 조명으로 격찬을 받았던 프로덕션이다. 소프라노 아일렌 하난은 이 오페라의 여러 영상물 중에서 단연 주목받는 가정교사 역을 펼쳤다.



BBC/Opus Arte
OAF4015D

프레데릭 애쉬튼 : 고집쟁이 딸

프레데릭 애쉬튼의 가장 사랑스런 전원 발레
<고집쟁이 딸>은 흠여머니의 반대를 무릎 쓰고 명청한 부잣집 아들 대신 가난하지만 밝고 건강한 농부를 선택하는 현명한 시골처녀 리즈의 이야기이다. 1789년 첫 작품이 만들어져 발레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막 발레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19세기에도 이에 입각한 개정 안무들이 나왔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고집쟁이 딸>은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이 1960년에 만든 것이다. 첫 장면부터 수탉들의 요절복통할 춤이 펼쳐지는 것은 물론 춤 모자란 알맹을 통해 온갖 코믹 발레의 요소를 그대로 담아내지만, 주인공 리즈와 연인 콜라스의 사랑, 리즈와 엄한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면을 펼쳐내기도 한다. 보는 내내 미소를 짓게 만들고 마지막에 함께 행복해지는 작품일 뿐 아니라 18세기 유럽 시골의 풍경을 재치있게 담아낸 명작이다. 영국 로열 발레단의 오리지널 프로덕션을 고스란히, 아니 더 아름다운 무대로 재현한 호주 발레단의 1989년 실황이며 특히 콜라스 역의 데이비드 매칼리스터는 로열 발레단의 주역급을 능가하는 솜씨를 발휘한다.



TDK DVD



TDK DWWW-OPCFTSF

모차르트 : 코지 판 투테

마가렛 마샬(피오르딜리지) / 앤 머레이(도라벨라) / 제임스 모리스(구글리엘모) / 프란시스코 아라이자(페란도) / 캐슬린 배틀(데스피나) / 세스토 브루스칸티니(돈 알폰소) 리카르도 무티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사에 일획을 그었던

미카엘 함페 연출의 코지 판 투테

많은 모차르트 오페라 팬들이 고대해왔던 리카르도 무티의 ‘코지 판 투테’ 1983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이 드디어 DVD 영상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 폰테의 대본을 토대로 완성한 아름답고도 즐거운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작곡가가 남긴 주옥과도 같은 여러 오페라들 중에서 ‘피가로의 결혼’과 ‘마술피리’ 다음으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무대를 장식했던 인기작이다. 소(小)축전극장의 아담한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공연실황은 저명한 오페라 연출가 미카엘 함페의 깔끔하면서도 전통적인 연출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한다.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미를 한껏 강조한 무티의 여유로운 지휘 아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상급 가수들이 각자의 캐릭터에 최적화된 노래와 연기를 자연스럽게 쏟아낸다. 스코틀랜드의 소프라노 마가렛 마샬과 아일랜드의 메조 앤 머레이가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 자매를 우아하게 노래하였고, 제임스 모리스와 프란시스코 아라이자가 이 자매들의 짓궂은 연인을 연기하였다. 노련한 이탈리아 바리톤 세스토 브루스칸티니와 당시 정상급 스타로 막 발돋움하던 시점의 캐슬린 배틀이 노래하는 돈 알폰소와 데스피나 역시 작품의 즐거운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TDK DVWW-JG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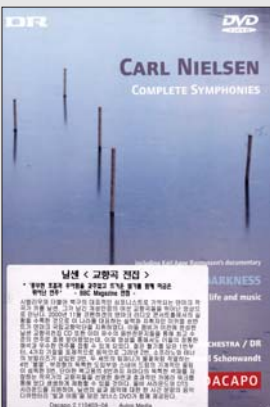
곤잘로 루발카바 트리오 : Live in Munich
1994년 뮌헨 여름 피아노 음악축제 실황
연주: 곤잘로 루발카바(피아노) / 론 카터(베이스) / 홀리오 바레토(드럼)

천재 재즈 아티스트들의 열정적인 콘서트 기록
쿠바의 천재 재즈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와 거장 베이시스트 론 카터, 그리고 그의 완벽한 파트너 드러머인 홀리오 바레토가 1994년 뮌헨 여름 뮌헨에서 가졌던 음악 축제 실황이다. 루발카바는 쿠바 출신이지만 쿠바 음악에 재즈를 도입하거나 비밥에 남미 리듬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아주 독특한 음악세계를 들려주는 아티스트. 이 천재 젊은이가 그의 두 친구들과 벌이는 공연은 재즈 애호가들이라면 초미의 관심사다. 청중들은 당연히 어떤 뜨거운 라틴 리듬을 기대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음악보다는 먼 옛날의 재즈 전통의 음악을 들려준다. 60년대 재즈의 풍경을 연상케 하는 노 거장 론 카터의 연주도 아주 각별한데, 특히 9번 트랙 'A Night in Tunisia'에서 론 카터가 들려주는 솔로 베이스 도입부의 현란한 연주는 압권이다. 영상물로 이보다 흥분되는 재즈 콘서트를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Dacapo 2.110403-05

닐센 : 교향곡 전집
미카엘 쇤반트 /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이 연주들은 현재 상품화된 동곡의 연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레코딩이다.’
- Classicstoday 1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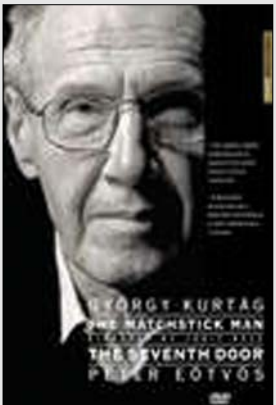
‘다카포에서 발매된 미카엘 쇤반트의 우수한 덴마크 교향곡 음반들은 무조건적으로 추천할만한 가치가 있다.’
- Fanfare Magazine -

‘풍부한 호흡과 우아함을 갖추었고 뜨거운 열기를 함께 머금은 뛰어난 연주’
- BBC Magazine 만점 -

시벨리우스와 더불어 북구의 대표적인 심포니스트로 기억되는 덴마크 작곡가 카를 닐센. 그가 남긴 개성만점의 여섯 교향곡들을 뛰어난 영상으로 만나다. 2000년 11월 코펜하겐의 덴마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실력과 지휘자인 미카엘 쇤반트가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을 지휘하였다. 이들 콤비가 이전에 완성한 닐센 교향곡 전집 CD 또한 이미 유수의 음반전문지들을 통해 최고 수준의 연주로 호평 받아왔었는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들의 정통한 해석과 우수한 연주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젊은 혈기를 담은 1번부터, 4가지 기질을 표제적으로 음악으로 그려낸 2번, 소프라노와 테너의 보컬리츠가 삽입된 3번, 두 세트의 팀파니가 불꽃처럼 작열하는 4번 ‘불멸’, 부정형의 독특한 도입부와 스네어 드럼의 기계적인 울림이 섬뜩한 5번, 단아한 북고풍의 6번까지 저마다의 독특한 색채를 자랑하는 작곡가의 교향곡들을 선명한 화면과 효과적인 카메라 워크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돌비 서라운드와 DTS 서라운드를 지원하며, 닐센의 삶과 음악에 대한 한 시간 분량의 음악 다큐멘터리 ‘빛과 어둠’을 담은 보너스 DVD가 함께 제공된다.

JUXTAPOSITIONS™

JUXTAPOSITIONS



DVD9DS16

Gyorgy Kurtag – Peter Eotv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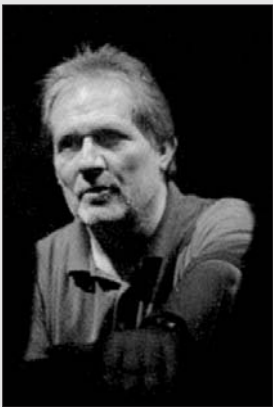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현존 작곡가 두 사람을 함께 만나.

1. 성냥개비 사나이 : 기요르기 쿠르탁

헝가리를 대표하는 현대작곡가인 기요르기 쿠르탁. 외부로의 노출을 꺼리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의 작품 이면의 세계를 살펴보기가 좀체 힘들었기에, 음악다큐멘터리 작가 유디트 켈레가 지적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상과 음악관을 포착해낸 이 영상물이 더욱 값지다. 그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인 마르타 쿠르탁 외에도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졸탄 코치슈를 비롯한 유수의 헝가리 뮤지션들이 출연하여 그에 대해 이야기 하며,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아바도와 베를린 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SACEM 상 수상작.

2. 일곱 번째 문 : 페터 외트비스

지휘자와 작곡가 양면 모두에서 맹활약 중인 정열적인 헝가리인 페터 외트비스. 역시 유디트 켈레가 그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훌륭히 시각화 하였다. 피에르 볼레즈, 슈톡하우젠과 같은 현대음악계의 거물들이 외트비스와 그의 음악을 이야기하며, 체홉의 유명한 작품에 곡을 입힌 작곡가의 대표적인 오페라 ‘제 자매’의 리허설 장면도 만날 수 있다. 1999년 SACEM 상 수상작. 2000년 클래식 앤그 이마주 페스티벌 특별상 수상작. 2000년 프랫 & 휘트니 캐나다 그랑프리 수상작.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컨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 CD Quality (64K)

시험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Glenn Gould HEREAFTER

A FILM BY BRUNO MONSAINGEON



Coming
Soon!



표지사진 : 야샤 하이페츠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7월호
통권 제 13호 발행 : 2006년 6월 24일
발행인 : 임용묵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